

February 21. 2021

1288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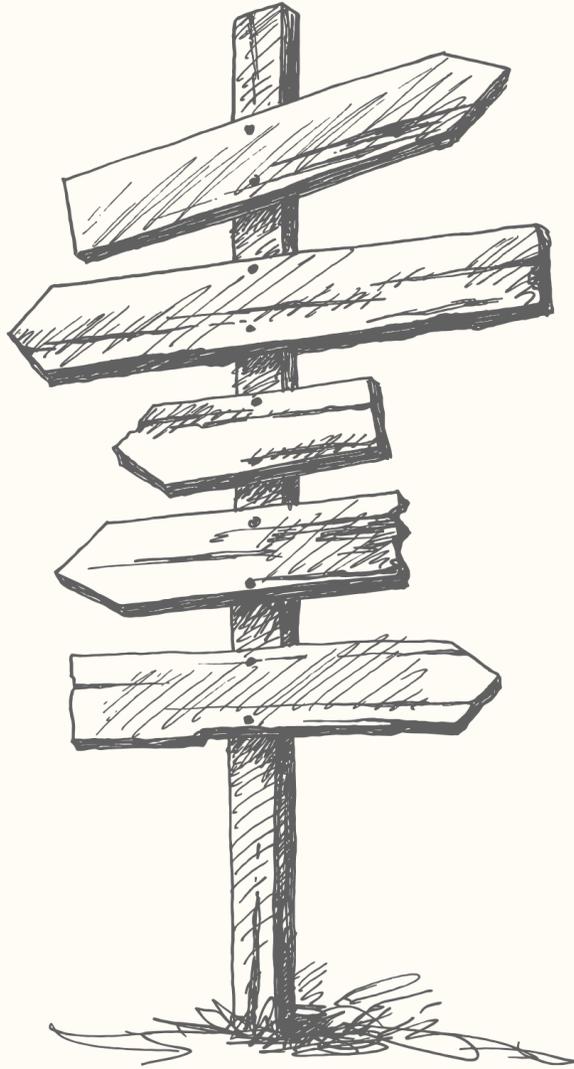
# 러닝포인트



**YES SAMIL**

since 1998

하나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삼일 주간지



**3 편집인의 글**  
박길웅 강도사

**6 시선 2.0**  
신국원 목사

**10 31pick**  
이승은

**15 방구석1열**  
박창준

**21 Our daily bread**  
장경훈 집사

**27 화목(花,木)**  
이아름

## 반전 있는 삶

우리는 저마다 극적인 반전이 있는 삶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마도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이 불만족스러워서 그런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삶을 180도 달라지게 만들어 줄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전이 있는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뭐래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삶 자체가 이미 반전이 있는 삶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다면 우린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죽음을 향해 달려 나가는 인생이었을테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삶인데도 여전히 어려움과 예기치 못한 고난이 때때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괴로움이 없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병들며 기대하지 않은 어려움에 노출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삶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예수’를 하나의 도구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어도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없는 삶이 반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유익과 만족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반전이 있는 삶’이 보이는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내면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삶의 반전은 세상의 죽음을 지나 다시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 달려왔든지 상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삶의 유일한 터닝

포인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어긋나 달리는 우리를 향해 저 멀리서 손짓하시며 돌이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삶의 유일한 반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닝포인트로 삼을 때,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①

터닝 포인트:  
뉴노멀시대의  
크리스천의 삶

글 신국원 목사



모두 합해도 1kg도 안되는 Covid19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가 주전(B.C)과 주후(A.D)로 나뉘듯이 코로나 전(Before Corona)과 후(After C)도 그럴 것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일상은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이른바 뉴노멀의 비대면 상황은 저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격수업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더 큰 변화입니다. 장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수업에는 동남아에서 참여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북미의 친구 교수를 참여시키는 ‘이벤트’까지 가능해졌고요. 비대면 온라인 수업! 내게는 세계관의 전환에 준하는 변화를 강제 당한 셈입니다. 요즘 저는 그간 교육의 본질보다는 형식을 고집한 것이 아닌지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한 오랜 논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사실은 선택의 여지 없이 한 방향으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지난 날 온라인 예배는 대안이거나 대체였습니다. 즉 정상이 아니었지요. 당분간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 후에도 일정부분 정상으로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어쩔 수 없어 바뀐 것이 정착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 뉴노멀의 핵심입니다. 특히 비대면과 거리두기로 들어온 삶의 변화는 아마도 상당기간 심리적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합니다. 지금은 불편을 넘어 불안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교회 마당에 와서 홀로 새벽기도를 드리고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참으로 안쓰럽고 그 심정이 깊이 이해가 됩니다. 반면에 이 참에 가나안 성도로 굳어지는 이도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편함과 안전에 익숙해진 사람이 옛 방식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니까요. 불편과 불안을 감수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그것을 찾아야 하는 절박한 신학적, 목회적 과제가 생긴

셈입니다.

오늘의 팬데믹이 가져온 뉴노멀은 지금까지 삶의 태도를 돌아볼 수 밖에 없게 만든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쁜 일상이 중단되자 하나의 커피를 완성하기 위해 400번을 젓는 여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한 구절의 성경 말씀을 몇 번이고 깊이 묵상하는 자세를 길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뉴노멀 상황에 대한 대처의 근본 원칙은 여전히 하나님과 이웃 사랑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길은 새롭게 찾아야 하겠지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죄성의 변화에는 오로지 복음의 혁신만이 길입니다. 참된 안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 샬롬의 복음은 어떤 상황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늘 상황을 변화시켰지요. 코로나가 가져온 뉴노멀의 변화는 큼니다. 하지만 이 강제된 상황 역시 복음의 슬기로운 삶을 향한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Y**



**돋이킬 수 없는**

에디터 이승은

시작부터 퀴즈. 아브라함, 야곱, 바울의 공통점은?  
정답은 ‘세 명 모두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단  
순히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배경에는 각각 인생  
의 터닝 포인트가 함께했다. 13년의 침묵을 깨고 아  
브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로 여러 민족의 아  
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언약과 함께 ‘아브라함’이라  
는 이름을 주셨다(창17장). 야곱은 지난한 세월을 보  
내고 20년 전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 에서에게 돌아  
가는 중 하나님과 씨름하여 다친 허벅다리과 함께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하나님과 겨뤘 이김’이라는 뜻)  
이다(창32장). 바울이라 이름 하는 사울은 어떤가. 많  
이들 개명으로 알고 있는 이름 ‘바울’은 사실 히브리  
식 이름인 사울의 로마식 발음이다. 그런데도 사도  
행전 13장을 기점으로 사울이라는 이름 대신 오직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만 등장하는 이유는, 그리  
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으로서 사울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은 그의 소명을 반영한 것  
이라 볼 수 있다. 이 사건들 가운데 아브라함, 이스  
라엘, 바울이 계획한 인생의 그림은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이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이끄신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내 삶은 어땠나. 시간을 거슬러 중3,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할 때였다. 나는 남들과 조금 다른 기준으로 진학할 고등학교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남녀공학 합반’이었다. 내가 살았던 지역에서 전 학년 합반을 하는 학교는 손에 꼽혔다. 털털한 성격에 남자인 친구가 편하기도 했고, 여자 무리 사이에서 예민한 편 가르기, 시샘, 질투 등을 싫어한 나는 합반 학교에 가려고 별도의 고입 시험을 준비했다. 결과는 합격. 기대한 만큼 꽤 만족스러운 고등학창 시절을 보냈다. 그러나 3년이 흐른 후, 여대 진학이 결정되고 받았던 친구들의 장난기 어린 놀림과 내가 느낀 허무함이란... (고등학교 합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낭만이 대학 캠퍼스에 있지 않은가!)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뿐인가. 인생의 대사(大事)인 결혼도 내 계획과는 거리가 멀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훌륭하게 나와 동생을 키워 주신 커리어 우먼이었던 엄마의 영향, 그리고 여자가 임신양명하는 시대 흐름을 따라 나도 당연히 결혼은 내 경력을 쌓은 다음 늦게 할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다. 사회를 위해 내가 쓰임 받을 곳을 생각하며 미래를 그렸다. 그러나 삼일교회 덕택이었을까. 26살이라는,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해 지금은 나 혼자만이 아닌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패는 아니다. 원하지 않았던 여대에 진학하려고 상경하면서 삼일교회를 왔고, 좋은 팀을 만나 신앙의 기틀을 마련했다. 압축된 시간 속에 헬퍼, 리더, 간사까지,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을 받았고, 폭발적인 신앙 성장의 계기가 됐다. 그 와중에 팀 선교에 참여하지 못해 우연히 참석하게 된 농어촌 선교에서 만난 남자가 지금의 남편이다. 원하는 때, 원하는 상황으로 맞이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만, 뜻대로 된 적은 없다. 있다 해도 시간이 지난 뒤 돌아보면 실상 내가 원했던 게 아닐 때가 대부분이다. 내 삶의 진짜 터닝 포인트는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니 이미 만났다.

주님!

예수님을 영접한 사건만큼 인생에 가장 크고 확실한

전환점이 있을까. 그만큼 나를 180도 돌린 사건은 없다. 터닝 포인트를 지난 순간, 우리 인생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다. 예수님을 만나 실로암 못에서 눈이 밝아진 맹인,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삭개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앞에 거꾸러져 평생 그리스도를 전한 바울의 이야기가 다름 아닌 내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인생은 늘 최고점을 찍는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정점과는 다르다. 그저 주님과 동행하기에 슬퍼하고 낙심하기보단 기쁜 걸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것이다.

겨울이 봄이 되고, 새로운 만남이 기대되는 2월의 끝자락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이미 그 터닝 포인트를 만났거나 혹은 곧 만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 ● Y



방구석1열 | 4

# BIG FISH

에디터 박창준



“내가 골목을 딱 도는데 말이야, 거기 불량배 녀석들이 아가씨 하나를 괴롭히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 야! 너희들 그 손 못 치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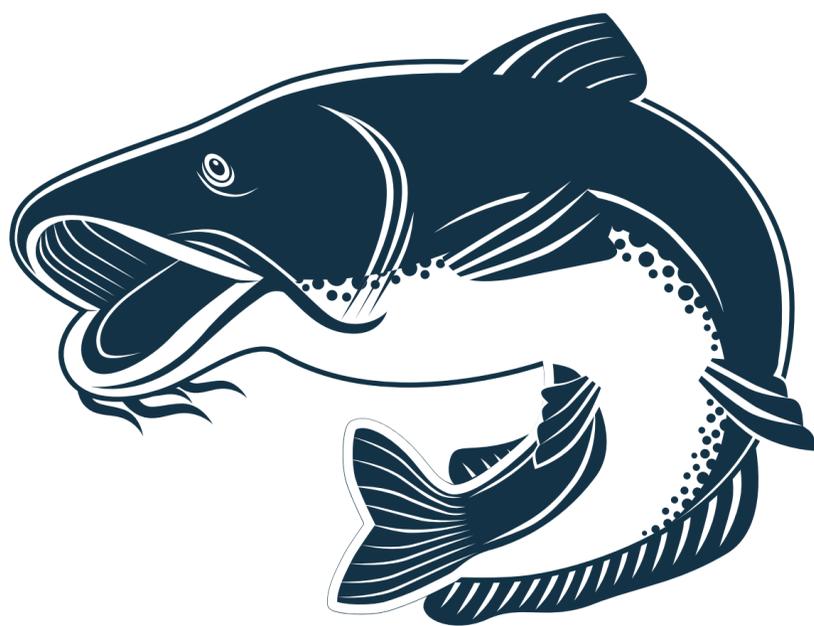
그렇게 17:1의 전설 같은 이야기는 시작된다. 대체 왜 17명인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우린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그 주인공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종종 아버지, 삼촌, 선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보니, 허풍은 남자들의 영역인가 보다.

여기 또 다른 허풍쟁이 에드워드스가 있다. 이 사내는 태어날 당시 어머니의 뱃속에서 총알처럼 발사되듯 태어났다. 비범했던 아이는 남들과 다르게 커가는 키와 흰칠한 외모로 마을 사람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못 하는 일이 없는 만능맨 에드워드스는 어느 날 마을의 양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사건의 해결사로 나섰다. 마을 외곽에서 발견한 ‘4m가 훌쩍 넘는 거인’의 소행임을 밝힌다. 그리고 거인을 설득하여, 함께 마을을 떠나 더 큰 세상을 향해 여행을 떠난다.

그 이후로 펼쳐지는 이야기는 더 가관이다. 서커스단 단원으로 일하며 만났던 늑대인간 이야기, 호수 밑 숨겨진 마을을 방문했던 일, 전쟁 중 참가했던 특수임무에서 우연히 만난 삼쌍둥이 자매 이야기... 도무지 실제라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지겹게 들어 온 아들 윌에게는 그저 한심한 허풍일 뿐이다.

특히 자신이 태어난 날, 아버지가 호숫가에서 결혼반지를 삼킨 큰 메기와 격투를 벌여 결국 그 메기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모든 허풍의 정점이었다.



월의 결혼식 축하자리에서도 그 전설의 빅 피쉬 이야기가 이어졌고, 결국 참지 못한 월은 아버지에게 분노를 쏟아낸다. 그렇게 3년간 끊어졌던 부자의 인연을 이어준 건 다름 아닌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쇠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에 마음이 가라앉는 순간, 또다시 시작된 아버지의 허풍에 마음이 복잡해진다. 어머니의 부탁으로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을 계기로 아버지의 이야기 속 진실들을 찾아나서게 되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병실에서 월은 산부인과 의사 베넷박사를 통해 또 다른 ‘진실’하나를 전해 듣게 된다. 월이 태어나던 날 아버지는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셨고, 결국 어머니 혼자 자신을 낳았다는 별거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이야기... 그리고 베넷 박사는 말을 이어간다.

“반지나 물고기로 꾸며진 이야기와 진실을 고르라면, 나라도 더 환상적인 이야기를 택했을 거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

리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일상에 매몰됐던 한 가장이 아들에게 하는 서툰 사랑의 표현과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미안함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무엇보다 특별했던 그 날의 이야기를 환상적으로 꾸며낸 것이다.

아버지의 장례식장, 그곳에서 월은 아버지의 이야기 속 인물들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 비록 4m가 아닌 2m의 거인, 삼쌍둥이가 아닌 평범한 쌍둥이였지만,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는 90%의 진실에 10%의 사랑을 보태 각색된 이야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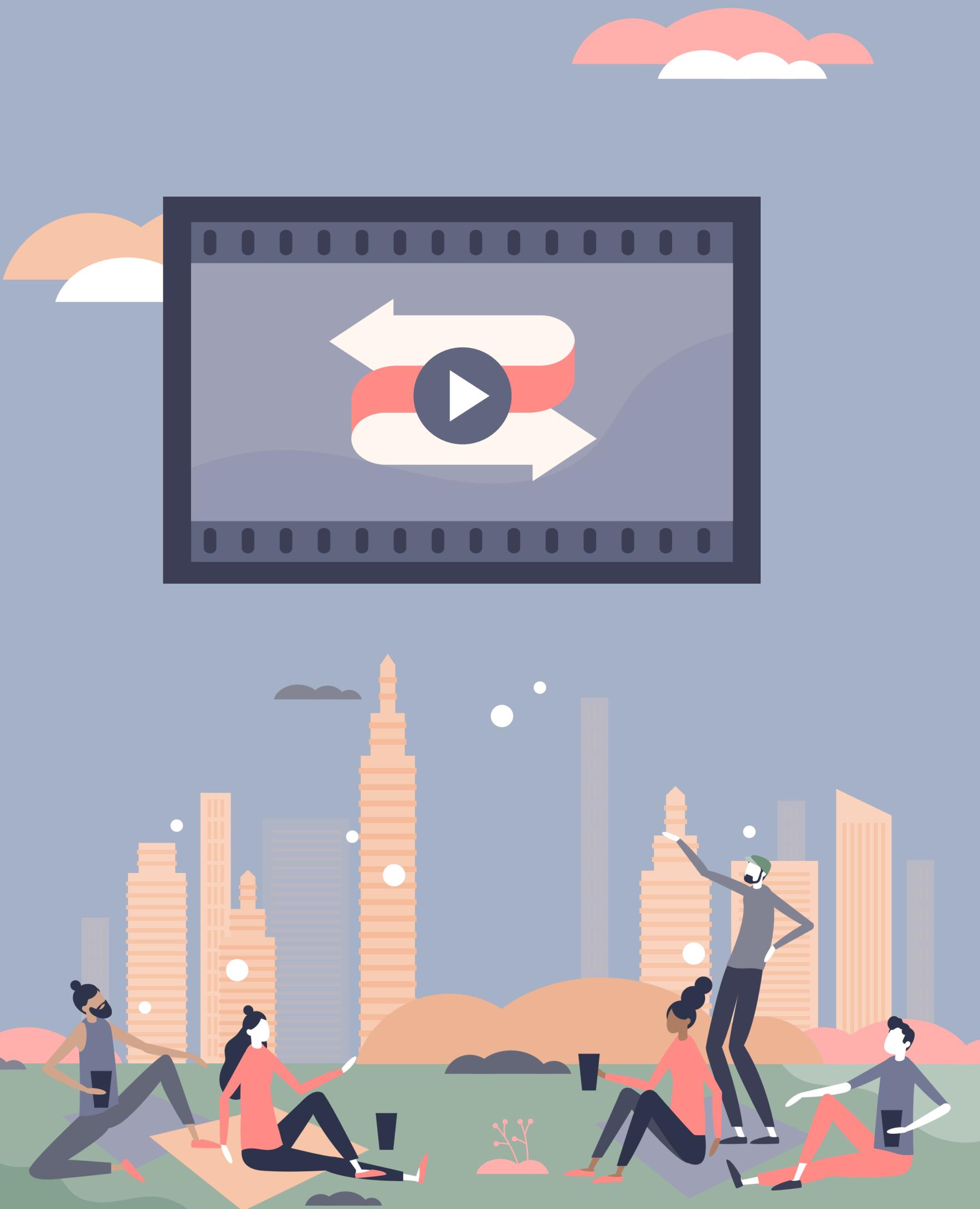


우린 너무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어 있다. 삶은 고되고, 정신없이 흘러가며, 벅차기까지 하다. 그렇게 정신없이 지낸 삶이지만, 한 발 떨어져 바라보면 얼마의 정도로 평범해서 특별할 것도 없어 보인다. 사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가득하다. 우릴 아끼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린 언제나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다. 첫 뒤집기 하던 날, ‘엄마’를 처음 불렀던 날, 학창 시절 무용담, 나만 힘든 군대 이야기, 영화보다 절절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내 아이와 처음 인사하던 날.

우리 삶엔 환상적인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자칫 무미건조해 보일 수 있는 삶을 더 다채롭고 살만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유독 힘들고 우울했던 2020년 한해였지만, 올해엔 좀 더 멋진 이야기들로 가득할 우리 삶을 기대해보는 건 어떨까. ● Y

# 다시 보자: 러닝포인트

글 장경훈 집사



터닝포인트. 이번 주제를 듣고 은혜의 도가니탕이 되는(?) 간증을 써보려고 국산 참깨로 기름을 쥐어 짜듯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삼일 공동체에서 어설픈 간증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자괴감에 빠져 포기하고 있다가 괜히 심술이 나서, 한번 주제를 뼈 딱하게 보려고 합니다.

터닝포인트라는 말은 여러 맥락에서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주는 사건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루한 삶에 터닝포인트가 필요해!’라거나, ‘그 사건이 지금의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터닝포인트가 되어 주었죠.’ 와 같은 맥락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사전적 정의는 ‘중요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 계기, 상황’을 의미할 뿐, 그것이 반드시 긍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관습적으로 긍정적 맥락에만 쓰니 그 용례를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순간이 후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경험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말 그대로 뜻을 더 파고들면, ‘turn’이 ‘돌다, 방향을 바꾸다’의 의미고, 가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의미이니 그 상

황이 달갑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나도 물고기 배 속이 터닝포인트였지만, 전지적 작가시점을 벗어나 일인칭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인간적으로 아주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인생’, 터닝포인트라는 단어와 자주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많은 유명인이 토크쇼나 강연에 나와 말하거나, 신앙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 듣는 ‘터닝포인트’는 대부분 그들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거대한 사건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앞서 말씀 드렸듯 인생 전체를 뒤집어 놓는 사건은 사실 꽤 오랜 삶을 산

후, 3인칭 시점으로 본인의 인생을 관조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무릎을 ‘탁’ 치며 ‘맞아! 그랬었지!’ 하게 될 것이므로, 그 순간을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는 범위를 조금만 좁히면 생각보다 많은 터닝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위인전이나 나올 법한 파란만장한 인생에만 진정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동네 수입과자점에서 내 입맛에 딱 맞는 300원짜리 젤리를 발견한 일은, 우아하지만 내 입맛에 그리 맞지 않는 디저트에 몇만 원씩 쓰던 나의 미각 경험에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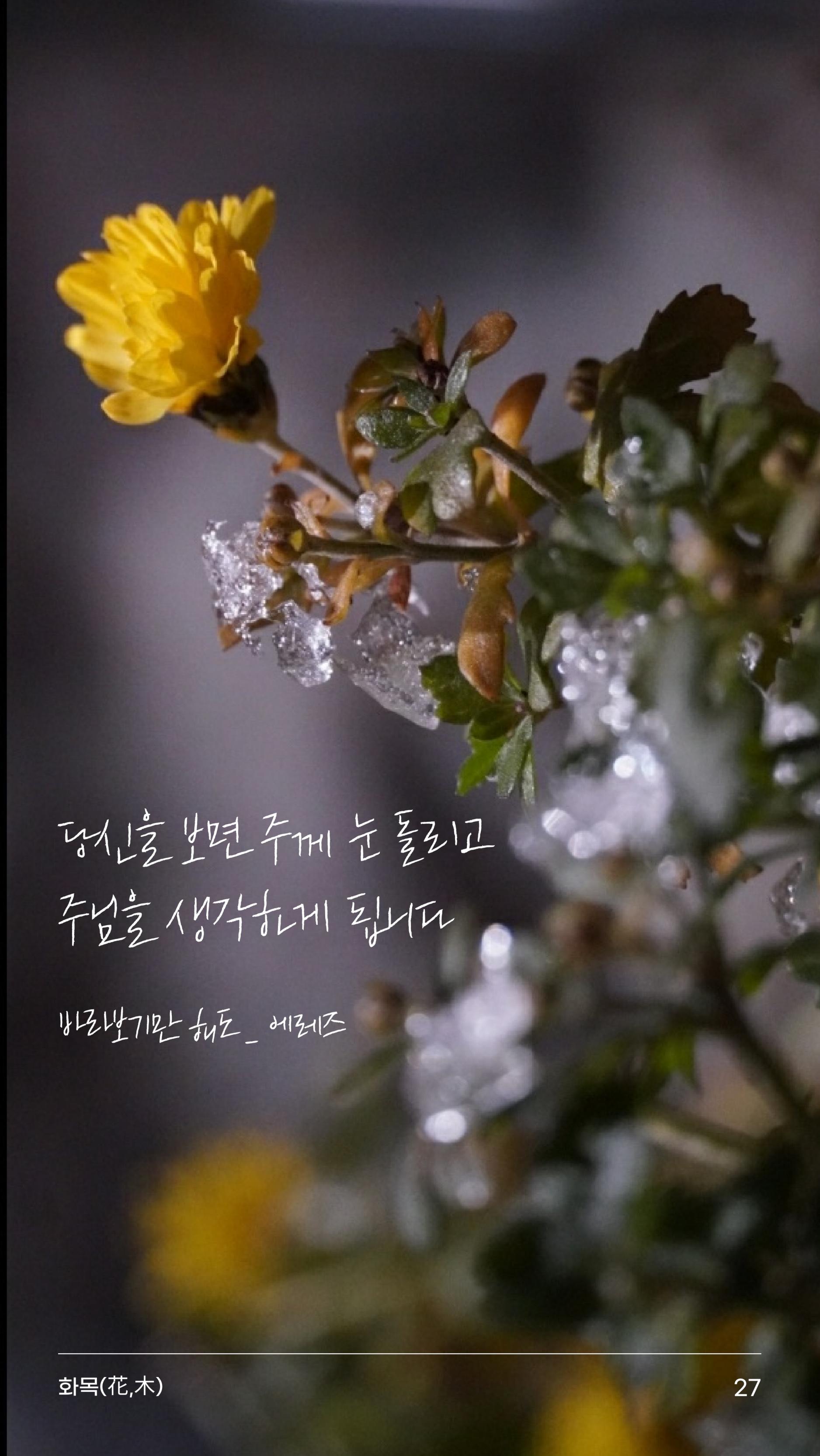
터닝포인트를 경험한 인생은 그것을 통해 얻은 교훈이나 변화를 계속 지키며 살아갈까요? 우리가 아는 바는 동화 속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처럼 ‘happily ever after’로 끝나기에 저도 그럴 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니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이야기로 알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신앙인인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일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서로를 진지하게 알아갈 때면 빠질 수 없는 주제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이고, 그것이 곧 우리 크리스천 인생에 ‘터닝포인트’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후 삶은 어떠신가요?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구원의 감격으로 환희에 차 있던 시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아,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나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삶을 살지요!’하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마저 숨기고 싶을 정도로 무너진 삶을 보면 그것은 터닝포인트가 아니었던 것일까요?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터닝포인트’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갖고 계획도 세우고 분주한 하루 하루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 글이 너무 힘 빠지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터닝포인트란, 중요한 상황의 변화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일이지, 보이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은 아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터닝포인트를 만난 것이 아니듯, 그 이후의 삶을 변화된 모습으로 유지하는 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겠습니다. ①





평생을 보면 주께 눈 돌리고  
주님을 생각나게 됩니다

바른보기만 해도 \_ 에리즈

# YES SAMIL

발행처	삼일교회 <a href="http://www.samilchurch.com">www.samilchurch.com</a>
발행인	송태근
편집인	박길웅
부장집사	정범성
부감집사	정재필
편집장	이유나
에디터 1팀	정재필 윤희종 최진아
에디터 2팀	이정호 박창준 이승은
디자이너	이혜승 원예지 김아란
포토그래퍼	김동규 이아름
필진	신국원 김희석 성수민 한성복 박성민 장경훈 허정미
객원 사진기자	김다윗 강지훈 김성 문주현 박훈희
일러스트	교회오빠 명하나
표지제공	명하나
주소	대한예수교장로회 삼일교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04 7층 예스삼일
대표메일	<a href="mailto:yes31editor@gmail.com">yes31editor@gmail.com</a>